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10월 13일(금)
--(음력 8월 29일)--
Пятница
13 октября 2023 г.
№ 40 (1205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0월 15일 러시아에서 직업적 명절인 도로사업 분야 근로자들의 날을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촬영)

주지사, 주두마 의원들과 사할린주의 발전 문제 논의

새로운 주두마 의원 선출 후 주지사와 주두마 의원들 간 정규 비공식 실무회의가 전례대로 진행됐다.

정당과 신입장을 받은 단체의 모든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앞으로의 실무계획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며, 논의한 가운데 사할린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및 기획 분야 실행에 대한 중간 결과들을 논의했다.

올 연말까지는 건설된 진료센터들을 총 가동시켜 무료 심층건강검진을 1.5배 이상 확대해 완수할 계획이다. 이에 2021년에는 7만3천여 명이 건강검진을 받았고, 2022년도에는 9만 명, 올해는 15만 명이 심층건강검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할린주는 온천요법, 기후요법, 진흙요법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태평양 의료 클러스터를 건설하여 온천요법과 휴양 및 요양 등 몇 가지의 요소들을 결합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광천수가 샘솟는 곳에 특별히 세워진 첫 광천수 샘터가 생긴다.

주두마 의원들은 지역에 도로 보수공사와 재건에 따른 대규모 사업이 계속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이에 주지사는 무엇보다 많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역의 도로건설과 보수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사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도로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최우선권이 주어진다. 사할린주는 서쪽 해안가에 있는 도로와

내년이면 첫 단계의 건설이 마무리될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역의 외곽도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 경과를 설명하는 가운데 2026년에는 점차적으로 이주 프로그램의 시급한(당면한) 단계가 마무리되고, 이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할린 지역이 연방예산으로부터 전례없는 지원을 받아 다음 단계의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몇 년간 노후주택으로 판정된 다가구 주택이 활용돼 임대주택 건설량의 증대를 위한 상당한 투자금이 만들어진다. 주정부는 필요한 전문가들에게 특혜 가격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건물주에게서 이를 구입할 계획이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여러분과의 비공식적 만남과 두마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회의를 통해 이러한 것을 조율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러한 만남들은 진행된 사업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본질적인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집중하도록 요청하기도 한다. 피드백의 소통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여러분은 전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며, 그들의 요청을 수집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사할린과 쿠릴의 주민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만남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주택 건축과 사할린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시의 여러 구역들에서 주택과 사회적 시설 건설에 따른 기획들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주지사와 주 정부, 주 의회의 전례없는 지원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발전에 급격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2023년 연말까지 도시 남부지역 '고리존트(수평선)' 주택가에 240명을 수용할 2개 유치원을 건립하기로 되어있다. 2024년에 도시 16호 구역에 1260명을 수용할 학교를 건설할 계획이며, 19호 구역에는 110명을 수용할 새로운 학교 건축이 시작되고 있다. 도심에는 3개 보건소가 곧 생기는데 달네에 마을에 120명이 교대로 진료받을 수 있는 보건소, 젤레도로즈나야 거리에는 331명이 교대로 진료받을 수 있는 보건소, 호무도위 병원에 330명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가 생긴다. 루고위에는 230명을 수용할 아동예술학교가 건립되고, 30호 학교에는 550명을 수용할 추가 건물이 들어서며, 건물 외벽과 복도 보수공사는 지속된다.

미라 거리와 콤포니스트체스키 거리 교차로 구역에 사할린 국립대 공원 조성이 계획되었으며, '로가트카' 강변의 보수공사도 계속되고, 고리키 거리와 극동개발부 거리 교차로 구역에 '조국 수호자' 소공원 건설도 계속된다. 특히 도심 야경과 조명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사할린 주두마의 엘레나 카시야노와 의장은 "이러한 비공식적 만남은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왜냐면 각각 의원들에게는 지역 전체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부서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설정된 과제의 해결책으로 사할린 주지사와 법무부와 정부, 정치 정당, 사회단체와의 상호협력 속에 조성되고, 완성되는 품질 표준의 기반이 촉진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바람직한 공동의 사업을 지속시켜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단신

사할린, 제1회 극동 노인자원봉사자 포럼 개최

10월 10일(화)부터 12일(목)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1회 극동 노인자원봉사자 포럼이 열렸다. 사할린주와 아무르주, 하바롭스크와 캄차카트 변경, 니즈니노브고로드, 마가단, 예카테린부르크, 연해주에서 약 200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였다.

포럼에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참가자들을 환영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사할린의 사회적 기획들을 알아보고, 경험을 교환하며, 주제별 강의를 참석하고, 원탁 모임과 활동교실에도 참여했다.

10월 10일(화)에는 주지사와 비공식적 대화를 나누고, 활동가들은 사할린과 쿠릴의 참전 장병들을 위해 기원을 담은 군 위장그물을 엮어 특수군사작전 지역으로 보냈다.

사할린 지역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에 고령층 주민 3000여 명이 사회 분야를 비롯해 보건, 스포츠, 문화, 주택공공사업, 환경보호 등등의 주요 방면에서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 농아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처음으로 사할린에서 개최

러시아 농아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사할린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경기는 10월 24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작되며, 3일에 걸쳐 진행되는 경기에 국내 수십 개 지역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교육훈련 센터 '위스트크'에서 경쟁하게 된다.

태권도 선수들은 '태권도- 체급별', '태권도 - 품새' 두 종목으로 나누어 몇 가지 시합에 출전한다.

사할린 주 전염병 상황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사할린 주에서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3,361명의 환자가 등록되었다. 이 수치는 지난주보다 10.9% 감소했지만 사할린의 역학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소비자보호감독청이 전했다.

전문가들이 감염 확산 속도가 적극적인 가운데 전 연령대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중에 급성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아데노바이러스, RS바이러스(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가 우세하다.

같은 기간에 사할린주의 코로나19 현황은 31명이 확진, 그중 1명은 미성년자다. 감염률은 전주 대비 3배(전 주 확진자 9명)가 증가했다.

신문 발행 표에 따라 새고려신문 다음 호는 **2023년 10월 27일**에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사 편집부)

Сообщаем, что согласно графику выхода газеты следующий номер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ыйдет 27 октября 2023 г. Редакция

사할린 한인 문제

〈사할린 한인 역사 정의회복을 위한 토론타당〉프로젝트의 첫 강연 개최

지난 10월 6일(금)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 한인 역사 정의회복을 위한 토론타당(토론타당)'을 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할린주주마,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의 협력으로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주최한다. 이 공개교육 기획으로 3달간 역사학 전문가들의 6개 강연을 하고 토론타를 열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을 여는 첫 행사는 유리 알린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관장, 임 유리 사할린 주주마 의장, 이 세르게이 사할린주 한인협회 부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토론타당〉이 사할린한인들의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아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토론타장이 될 것을 기대를 표명했다.

“토론타당”의 첫 번째 행사의 중심은 사할린국립대학교 교수이자 역사학 준박사인 엘레나 니콜라예브나 리시치나의 강연이었다. 주제는 〈가라후토 시대 사할린한인 강제 동원의 역사와 노동 대가 지급의 역사〉이다. 엘레나 리시치나 교수는 19세기와 20세기 사할린의 여러 기업에서 강제 노동을 포함한 노동에 관한 주제를 연구하는 사할린 역사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사할린과 일본 연구자의 눈으로 본 가라후토의 역사' 연구집의 편집자로서 남부 사할린의 일제 시대 역사에 대해 권위 있는 전문가다.

리시치나 교수는 이날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한인들의 사할린 이주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통계 수치도 밝혔다. 사할린한인 역사에 관해 흥미로운 정보가 많았다.

토론타를 위해 사할린한인 사회계와 문화역사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타자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다.

〈토론타당〉진행은 사할린한인 연구로 알려진 진 울리아 준박사가 맡았다.

첫 행사에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참석자가 적었다. 주최 측에서는 '토론타당' 참가자들이 내세운 모든 문제와 의견을 최종 결의안에 포함될 예정이고, 이는 향후 일본에 대한 역사 정의 회복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토론타당〉의 강연은 10월 20일(금) 오후 3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 할 예정이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관광 및 에너지 분야의 러시아 기업가들, 사업구상을 위해 쿠릴열도 방문

쿠릴열도의 사업개발에 관심을 가진 기업가 대표들이 2023년 10월 4일 - 5일 이틀간 이투루프 섬을 방문했다. 사업 사절단은 관광 및 에너지 분야에서 10개 이상 회사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사업가들은 쿠릴 산업들을 위해 훨씬 더 전망적인 관광 및 대체에너지 분야에 투자 제안을 받았다. 사업 사절단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인도로 이투루프 섬의 주요 투자현장도 방문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특히 사업을 위한 최적의 조건에 관심을 돌렸는데 그것은 러시아의 특혜제도로서 극동 지역을 비롯해 쿠릴열도에서 투자자들에게 20년간 주요 세금 면제, 세제 혜택과 행정 특혜가 제공되는 '쿠릴' 선도개발 구역, 토지계획과 제반시설 구축이 예정된 토지 획득의 기회 등의 가장 유리한 조건들이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극동 및 북극개발공사, 사할린 주정부가 유리 트루트네브 러시아 연방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러시아 대통령 전권대표의 지시로 행사가 조성됐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쿠릴열도는 특별한 지역이다. 이에 사할린주 정부와 대통령이 더욱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기획의 실현을 위한 필요한 모든 제반시설을 구축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투자자들에게 연방에서처럼 사할린주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책을 보장하고 있다. 이미 쿠릴열도에서는 대규모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미래에 개발을 위한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는 현대적인 호텔단지를 건설하고, 유류시설 구역을 조성하며, 수산물 가공 및 기타 산업을 개발할 구체적인 토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이는 관광객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사할린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사할린 주정부 안톤 자이체브 부총재는 쿠릴열도의 투자 잠재력을 발표하면서 쿠릴열도에서는 무엇보다 수산물 가공공장과 관광 제반시설을 구축하는 새로운 기업들이 설립돼 활발

히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적 제반시설이 구축되고, 지역 전반에 교통수단도 발전하고 있다. 관광 분야, 어업, 수산물 가공을 비롯해 주택 건설과 대체 지열에너지 분야의 기획 실행 등에서도 사업을 위한 광범위한 기회가 열리고 있다.

쿠릴열도를 방문하는 이유들 중에는 건강회복과 활동적인 관광, 낚시를 꼽았고, 화산과 폭포, 푸른 산호 해안, 동식물 등 독특한 자연경관을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쿠릴열도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최대 5만3천 명으로 2.5배 증가했다. 쿠나쉬르와 이투루프, 쉬코탄 섬에 넓은 수역은 가두리 양식업으로 이용되고 있다. 2026년까지는 쿠릴열도 내 전력시설의 용량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극동 및 북극개발 공사의 회장 니콜라이 자프라가예브는 현재 쿠릴열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쿠릴 지역의 투자 잠재력을 실현시킬 특혜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쿠릴열도에는 러시아에 존재하는 기업 활동의 가장 매력적인 특혜제도가 설정돼 있다. 이는 20년간 이곳에서 사업 시 수익에 대한 조세, 재산세, 교통세, 토지세를 면제하고 있다. 특혜 중에는 20년간 보험료 7.6%로 인하, 관세자유구역의 절차 적용, 토지 제공과 제반시설 구축의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새로 등록된 법인은 특혜 수혜자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14개의 회사가 쿠릴열도 특별 조세제도의 수혜자가 되었다. 이들은 약16억 루블리 를 투자하고, 기획들을 시행하여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 기획들은 호텔사업, 관광서비스, 제조 생산 및 기타 다양한 방면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 예로 '쿠나쉬르 투어' 회사가 관광단지를 건설하는 데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는 22개의 에코 하우스와 온천 단지, 돔 유형의 유리지붕으로 된 레스토랑, 휴게소 구역이 있고, 기업가들은 그림 같은 섬에서 관광안내를 할 것이다."라고 니콜라이 자프라가예브가 말했다. (3면에 계속)

이 모 저 모

사할린 방사선과 의사가 80세 여성의 뇌에서 재봉바늘 발견

사할린에서 지역 방사선과 전문의가 80세 환자를 검사하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났다. 고령 환자의 뇌를 단층촬영하는 중 3cm의 바늘이 발견되었다. 이 금속 물체는 뇌의 두정엽 영역에 있었다. 의료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이 이물질들을 지니고 살고있으며, 몸에 이상한 물체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검사한 자리에서는 부모가 직접 머리에 찔러 넣은 것으로 추측했다. 힘겨웠던 전쟁 시절 자녀들에게 먹일 것이 전혀 없었을 때, 갓 태어난 아기를 이런 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곤 했었다. 그 시절에 이와 유사한 일련의 사례들은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바늘이 두정엽을 관통해 거기에 남아있었음에도 당시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이다. 이 고령의 여성환자는 그 존재를 몰랐으며 수궁했다. 바늘은 최근 단층촬영(CT) 검사에서 발견되었다.

현재 고령의 여성환자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의사들은 그녀의 건강을 관찰하고 있다.

특별한 사례로 인해 모인 진단회의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바늘을 여성의 머리에 남겨두기로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과적 수술 개입이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На Сахалине рентгенологи обнаружили в мозге 80-летней женщины портновскую иглу

На Сахалине местные рентгенологи при обследовании 80-летней пациентки столкнулись с неожиданным.

На рентгеновском снимке головного мозга пожилой пациентки была запечатлена трехсантиметровая игла. Металлический предмет находился в теменной области мозга.

Как пояснили медики, с этим инородным телом женщина живет с рождения, она сама не знала о существовании постороннего предмета в организме. Как предположили на месте, иглу в мозг вогнали сами родители. В сложное военное время, когда детей кормить было нечем, они решили умертвить новорожденную. Ряд подобных случаев зафиксирован в те дни.

Но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хоть игла и проникла в теменную долю мозга и осталась там, малышка выжила как-то чудом. При этом сама женщина признается, что не знала о ее существовании. Иглу обнаружили на недавнем обследовании на томографе.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пожилая пациентка прекрасно себя чувствует, за ее здоровьем наблюдают врачи. Консилиум, собранный из-за необычного случая,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ничего не делать - игла так и останется в голове пациентки.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ей может навредить оперативное вмешательство хирургов.

사할린,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제 15회 사할린 장애인 체육대회가 '위스트크' 교육훈련센터에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열린 가운데 우글레고 르스크, 포로나이스크, 네웰스크, 흠스크,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스미르니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온 100여 명의 선수들이 메달을 놓고 경기를 치렀다. 자세한 사항을 사할린주 스포츠부에서 전했다.

선수들은 육상 종목에서 개인별, 단체별로 투포환 던지기, 멀리뛰기, 달리기, 탁구, 사격 종목에서 경쟁했다. 경기 결과 유즈노사할린스크 선수들이 종합 성적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코르사코브 선수들, 3위는 돌린스크의 선수들이 차지했다.

사할린에서는 적응형 스포츠의 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기

울이고 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한 과제 중 하나다.

Спартакиада инвалидов прошла на Сахалине

На базе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го центра «Восток» прошла XV Спартакиада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течение трех дней за медали боролись около ста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Углегорского, Поронайского, Невель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Долинского, Корсаковског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а такж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портсмены состязались в личном и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в легкой атлетике, которая включала в себя толкание ядра, прыжки в длину с места и бег, а также в настольном теннисе и пулевой стрельбе.

В результате первое место в общем зачете заняли спортсмен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 команды Корсакова серебро, а бронза у Долинска.

Развитию адаптивного спорта на Сахалине уделяю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Это одна из задач, поставленных президентом РФ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Туркие에서 열린 무에타이 세계 선수권 대회, 사할린의 소년 우승

사할린 선수 글렘 솔로비요브가 태국 복싱(무에타이)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영예의 사할린의 어린 선수가 튀르키예에서 열린 선수권대회에 출전했다. 경기가 케메르시에서 열린 가운데 태국 복싱 경기 선수들의 경쟁은 치열했다.

이에 77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 1000여 명이 명분과 메달을 놓고 경기를 치렀다.

(8면에 계속)

사할린주 향토 박물관, 한글에 관한 강연 개최

10월 9일 한글날은 전 한민족 모두가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다.

독창적인 한글창제는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쫓아내는 것과 관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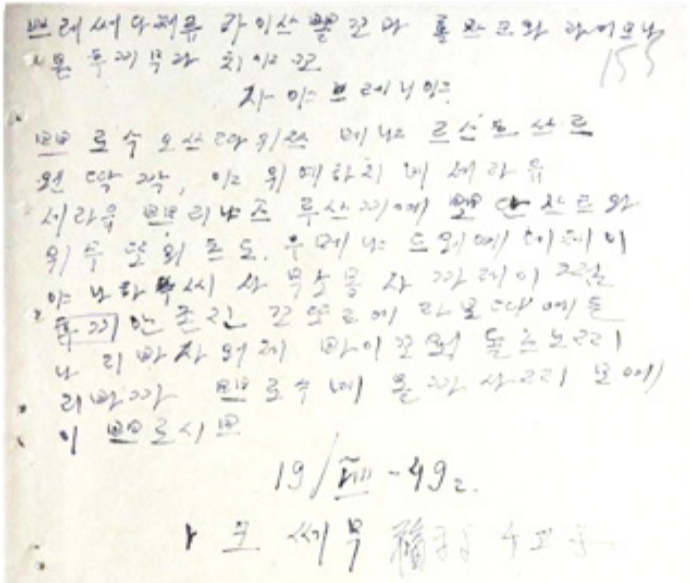
올해는 한글창제 577주년인 해이다.

지난 9일(월)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한글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향토박물관 부장인 진 율리아 역사학자는 한글창제의 역사에서부터 사할린 한인들이 사용하는 한글에 이르기까지 한글의 기원적 역사에 대해 언급했다.

사할린 한인들이 사할린 남부에 머물며, 1945년 소련의 관할권에 들어왔을 때 사할린 한인들은 러시아어를 몰랐고, 그들의 전통적인 문자를 사용했다. 소비에트 정부는 이들의 문화적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한글 교과서와 책을 출판하며 조선어와 관련 교육기관(조선학교와 사범전문대의 조선과), 조선극장을 창설하고 한글 매체인 신문과 조선 라디오 방송을 창설했다.

강연에서 진 강사가 소개한 흥미로운 문서 중 하나는 1949년에 사할린 한인 여성이 사할린에 남게 해 달라고 작성한 청원서이다. 이 문서는 러시아어를 한글로 썼다. 또한 진 율리아는 소련의 조선학교에서 사용되었던 한글로 된 소련의 교과서를 통해 흥미로운 삽화들을 보여주었다. 이 교과서는 희귀 문헌으로 새고려신문사에 보관되어 있다.

이번 강연은 <사할린 문화인류학 강연> 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사할린 문화인류학 강연> 기획은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와 사할린주 국립대학교와 협력으로 러시아 문화인류학 박물관이 개최하는 인기 있는 계몽행사로서 이를 중심으로 학자들은 문화인류학과 고고학, 역사 및 민속학을 주제로 강연을 열고 있다.



사할린에 남아 살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한 사할린 한인 여성의 청원서

관광 및 에너지 분야의 러시아 기업가들, 사업구상을 위해 쿠릴열도 방문

(2면의 계속)

또한 투자활동과 쿠릴열도의 '쿠릴' 선도적 사회경제개발지역의 잠재력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8개 기업이 선도사회경제개발 지역에 투자하여 이들의 총 투자액은 70억 루블리가 넘는다. 사업가들은 조세 감면과 행정 특혜를 이용하는 가운데 토지를 공급받아 제반시설 구축의 기회를 얻었으며, 10년간 보험료가 7.6%로 축소되고, 5년간은 수익과 재산에 대한 조세가 면제되어 생산기업을 위한 기업을 설립하고, 관광시설들과 호텔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계약이 선박을 건조하고, 건설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쿠릴' 선도사회경제개발지역의 참여 기업인 '아르하펠라 오네코탄(오네코탄 군도)'은 탐험, 생태, 크루즈, 온천과 미식 관광개발을 위해 쿠릴산맥의 북부 열도에 휴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이 기획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파라무시르섬, 오네코탄섬, 스텝섬, 쉬시코탄섬, 아틀라스와섬, 하림코탄섬, 라슈아섬, 우쉬시르섬들에 관광시설

들이 열리기 시작한다.

"우리는 러시아 동방개발부의 지휘 아래 지역 정부와 공동으로 쿠릴열도에서 기획들을 개발하게 될 모든 투자자들을 지원하겠다. 여기서 투자자들에게 핵심산업 분야에서 되도록 더 많은 기획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새로운 수산물 가공의 동력을 가동시키며, 좀더 활발하게 주변의 기술적 제반시설을 구축하게 하고, 섬들의 교통 편의도 개선시키며,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섬들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적 과제이다." 라고 니콜라이 자프라가예브가 말했다.

기업가 대표단은 다양한 기획들이 예정된 이투루프섬의 사업을 위한 몇몇 매력적인 투자 장소들을 계속 방문했다. 대표단은 이틀간 이투루프섬을 방문하면서 쿠릴열도가 추천하는 투자기회의 일부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사 기자) (사진: 아.크리울키나)

10월 1일 '아리랑의 날', 다시 불러보는 '사할린아리랑'

제8회 정선아리랑 가사짓기, 사할린 2세 김경순 씨 특별상 수상

10월 1일 '아리랑의 날'이다. 지난달 새로 탄생한 사할린아리랑 가사를 사할린동포들과 전국 아리랑전승단체에 전달했다.

지난달 9월 19일 정선아리랑보존회(이사장 김길자)가 주최, 주관한 제8회 정선아리랑 가사 짓기 대회에서, 사할린에 살고 있는 사할린 2세 김경순, 박영자 씨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사)정선아리랑보존회(이사장 김길자)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매년 응모작 모두를 모음집으로 출판해 정선아리랑 가사의 현재화와 전국적 관심을 축적해 오고 있다. 김길자 이사장은 "특히 올해에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사할린 동포들, 국내 영주 사할린동포, 탈북 새터민 등도 참여를 할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이는 전체 아리랑의 현재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자평했다. 이번 응모작은 심사 도중에도 현장 접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다. 심사에 오른 작품 수는 응모자 일반부 132명 312수, 학생부 45명 53수이다.

'정선아리랑 가사 짓기'는 올해 8회째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전국의 유일한 아리랑 가사 짓기 대회 행사이다.

사설은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끌려가서 80여년 동안 만나지 못한 육친의 뼈아픈 이별의 한과 '이산의 이산', '디아스포라(이산)'를 노래했다.

다음은 사할린한국교육원 한국어반 김경순(77세)씨가 지은 정선아리랑 가사이다. 자신들의 부모가 일제에 속아서 왔고, 나는 왜 사할린에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부모들은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닷가 언덕에 올라 하루종일 배를 기다렸다고 한다.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한평생을 사할린 동토의 땅에서 문혔다고 한다.

아리랑의 정서를 첫 번째로 찾았다면 아마도 사할린아리랑을 들 수 있다. '시대의 노래' 아리랑의 존재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후렴) 아우라지 물가에 봄꽃놀이 눈에 삼삼한데 왜놈에 속아 어린 아들 두고, 사할린에 징용 왔소.

사시 삼철 탄가루 눈발에 꽃가루 날리는데 모질고 배고픈 눈물의 정용살이 그 누가 아나요, 전쟁 끝나면 여랑 땅에 돌아갈 걸 믿었지,

한 달만 있으면 아들한테 갈 것을 철썩 같이 믿었지.

밤이면 라디오 켜 두고, 혹시나 우릴 찾을러나

숨죽여 듣던 세월은 꾸역꾸역 씬 해가 넘었네.

고향의 큰배 기다리다 병들어 세상 뜬 부모들 가엾어라.

부모 등골 쓰라리고 쓰라리네, 애타던 자식들도 애답퍼라.

다음은 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 한국어 강사 박영자(73세)씨가 지은 정선아리랑 사설이다. 사할린동포특별법이 발효되어서 누구든지 조선 사람들은 1세가 사망해도 2세 3세는 조국에 귀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있다.

무릉도원 정선을 놔두고 우리네 부모 사할린 정용왔네, 말문이 터지고 귀가 열릴때



알았네요, 우리네 조국땅. 나는야 사할린2세 한국인 우리네 부모 조국은 남조선 어릴 때 저 산 넘어가면 우리네 남조선이라고 알았네. 이제는 80년이 흐르고 흘러 나도 할머니 되었네요. 말문이 열린 손자들이 우리는 조국에서 못사나요, 가보지도 못한 조국이 잘사는 나라 되었네. 이제는 자랑스런 조국 세계인이 가고 싶은 조선땅 그리운 조국이 언젠가 우리를 그 품에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사는 사할린 2세 김경순(갈리나 김)씨와 박영자(갈리나 박)씨는 지난해 2021년 2022년 KBS 한민족체험수기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이 사설은 10월 1일 '아리랑의 날'에 경기도 양주에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이 살고 있는 율정마을 사할린아리랑보존회(최나타사)에 전달되었다. 앞으로 무대에서 이 사설을 노래로 다듬어서 부르려고 한다고 전했다.

현재 알려진 사할린아리랑은 사할린1세 정성에 할머니가 지어서 부른 것과 새고려신문 공모전에 당선된 정태식 씨가 지은 사할린아리랑이 음반과 무대화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사할린아리랑제, 문경아리랑제, 청주아리랑제, 왕십리아리랑제, 공주아리랑제 등에서 정성에 할머니의 장남 원명운(서천 영주귀국사할린동포회)씨가 부르기 시작했고, 각 지역 아리랑단체에서 불러지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사할린한국교육협회 부회장인 공노원 여사 손녀 신마미야(당시 12세)와 신아리나(당시 5세)가 2018년 사할린아리랑제와 2019년 문경새재아리랑제에서 '사할린아리랑'을 무반주로 불러 첫 막을 열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

박영자 씨는 "나의 4대 가족사의 디아스포라가 담긴 이 사할린아리랑이 책으로 묶여서 나온다고 하니 기쁘다. 기록으로 남겨진다고 하니..."라며 당선소감을 전했다.

김경순 씨는 "작년에 만든 사할린아리랑 가사를 비공식적이지만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렸다. 직접 불러서 녹음을 해달라고, 그런데 음반에 담게 되어 가끔 행사 마당에서 확성기를 통해 아리랑을 들을 수 있다. 올해 지은 이 사할린아리랑도 같이 불러졌으면 좋겠다. 우리 디아스포라의 아픔이 담긴 사할린아리랑을 역사에서 기억해달라."고 전했다.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권경석 회장은 "사할린아리랑은 사할린한인의 존재를 알리는 노래이다. 더불어 사할린아리랑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할린동포특별법이 널리 알려지기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내년에도 사할린 동포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디아스포라 아리랑, 사할린아리랑이 새록 새록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국악신문=기미양 객원기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Из фондов СОХМ

Корейская каллиграфия (4)



Чо Дон Хви "Ветка гибискуса"
КП-10249 Же-1453

Среди современных корейских живописцев – целый ряд имен, работающих в области жанра хваджодо («цветы и птицы»). Одним из них является старейший художник Чо Дон Хви (1932 г.р.), участник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ыставок и неоднократный обладатель высшей награды «Мугунхва». С 1980-х годов сюжетами его картин стали цветы гибискуса (мугунхва), являющие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символ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пожеланием процветания и благополучия страны. Мастер стал художником одного жанра «мугунхва», подобно старым мастерам прошлого, посвятившим свое творчество живописи бамбука или орхидеи. Значение слова «мугун» («вечность») сравнимо со стойкостью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её решимостью и упорством в преодолении трудностей. Художник трансформирует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 и стилистические приемы классического жанра «цветы-птицы». Применяя современные материалы (плотной текстуры ткань и акрил), автор прибегает к живописной технике конхиль «прилежная кисть», со всей тщательностью и «рассудочностью» выписывая пышное цветение гибискуса.

Произведение автора 2016 года («Ветка гибискуса»), как следует правилу классического живопис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дополнено текстом на хангуне (письменный язык Кореи до 1895 года, в основе которого лежал китайский вэньян): «От гор Пэктусана до гор Халласана расцветет мир,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свобода, равенство и братство». Гора Пэктусан находится на самой крайней точке севера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т неё начинается Пэкту тэган («Большой ствол»), цепь значительных горных хребтов и вершин, завершающихся горой Халласан на южной част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а о. Чечжудо. Понятие Пэкту тэган до сих пор является синонимом «территория страны», т. е. единой неразделённой страны. За сочностью и пышностью яркого цветения мугунхва автор вкладывает глубокий символический смысл, смысл пожелания процветания своей родине.

Хай Ок Дя, гл.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ОХМ

Сеул прилагает усилия дл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мир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ложит максимум усили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разделить ценность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с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людей в мире в рамках подготовки к цифровой эпох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послани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РК Хан Док Су, которое было зачитано 9 октября министро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Ли Сан Мином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по случаю Дня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хангыль. В этом году корейскому алфавиту хангыль исполнилось 577 лет. В послании выражена надежда на то, что именно хангыль станет мировым языком в эпоху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Хан Док Су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хангыль считается самой подходящей письменностью в цифровую эпоху. Не только отечественные, но и иностранные компании предоставляют услуг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оздавая поддержку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на основ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этом фо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мерено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популяризац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мире, увеличивая количество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центров, – говорится в послании.

KBS World

Открытие дискуссионной площадки

6 октября в 15:00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нового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 «Дискуссионной площадки по вопросам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РООСК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Открыт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ветственными словами от ди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Юрия Юрьевича Алина, депута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Юрия Владимировича Им и вице-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Сергея Деннамовича Ли.

Центром перв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в рамках «Дискуссионной площадки» стала лекция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Елены Николаевны Лисицыной. Тема «История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и оплаты за труд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период Карафуты». Е.Н. Лисицына – извест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историк, изучающий тему труда, в том числе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на различ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Сахалина в XIX и XX веке. Является Елена Николаевна и редактором сборника «История Карафуты глазами сахалинских и японски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то есть признанным специалистом в истории японского периода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ультуры 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которые высказывали свое



мнение, дополнения, задавали вопросы лектору. Все вопросы и замечания участников «Дискуссионной площадки» войдут в итоговую резолюцию, которая станет направляющим документом для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дальнейш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предъявлению претензий к Японии в вопрос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Наш корр.
Фото: Ли Е Сик

«Открывая безграничные источники знаний» (часть 2)

Масштабный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й проект «Открывая безграничные источники знаний», старт которому был дан 19 мая 2023 года в стенах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продолжает свою историю и открывает все новые и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получения знаний, умений и навыков.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оекта, преподаватели кафедры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ИФИИВ, ставили своей целью вовлеч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обучающихся разного вида и профил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бласти в процесс познания, изучения, поним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тории родного края. Ведь 2023 год уникален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ъявленный Годом педагога и наставника, он наполнен разными интересными и значимыми событиями, одним из которых можно считать 30-летний юбилей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За это время проект стал еди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педагог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еятеле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руководителей клубов и федераций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видов спорта Тхэквондо и Ссирым.

27 сентября, спустя четыре месяца после первой встречи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юные спортсмены ЮСМСО «Клуб Торнадо» (руководитель Ри Павел Гирсонович) провели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перед воспитанниками МАДОУ №9 «Чебурашка» (руководитель Янушкова Роза Николаевна) в честь открытия на базе детского учреждения отделения тхэквондо в рамках системы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аздничным подарком стал сюрприз, во время которого тренер в прыжке разбил кулек с конфетами, подарив детям дождь из сладостей.

29 сентября 2023 года гостями детского сада «Чебурашка» стали студенты 2 курса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обучающиеся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подготовки 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рофиль «раннее обучение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Поводом для встречи будущих педагогов со своими потенциальными учениками стал утренник,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малышами на тему календарных традиций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праздник урожая «Чхусок». Благодаря стараниям педагога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Ан Хан Ен все были вовлечены в процесс, став актив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праздника. Студенты получили уникаль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о спецификой работы детских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 узнать тонкости работы с деть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Открывая безграничные источники знаний» организаторам удалось выстроить систему твор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етский сад-школа-вуз», в которой показаны пут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сех тре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собое место в проекте занимают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готовые представить участникам проекта возможности общеэстет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Так, ученики 8 А класса МАОУ «СОШ № 2» г. Корсакова посетили ГБУК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Как отмечает со-



проводящий их педагог О Дем Сун, учи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ети с большим удовольствием слушали экскурсоводов, которые интересно рассказывали об экспонатах. Ученики впервые попали в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поэтому первая экскурсия была посвящена знакомству с ним. Хотим сказать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главному научному сотруднику Хай Ок Дя и ее коллегам за интересный рассказ о своей работе, своих трудах и за то, что заразили детей своей неподдельной любовью к культуре».

9 октября 2023 г. студенты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изучающи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ак основу своей будущей профессии, организовали творческий мастер-класс на Фестивал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МАОУ Восточная гимназия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частники фестиваля нарисовали брелоки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лотоса, символа чистоты, щедрости и мудрости в восточной культуре, зарядившись энергией этого таинственного цветка.

Разнообразие тем, многогранность возможностей, метапредметный подход и сама динамика развития проекта еще раз доказывают его ценность и раскрывают положительное практ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Участники вовлечены в целый ряд мероприятий, что, несомненно, способствует развитию их как всесторонне развитой личности и формирует уваж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е народов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семь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львира Лим, Инна Корнеев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утвердил назначения новых министров обороны и культуры

7 октября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утвердил назначения нового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Син Вон Сика и нового ми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Ю Ин Чхон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зидент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ин Вон Сик,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бывший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ъединё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был предложен главой государства на должность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в сентябре. Ю Ин Чхон ранее занимал должность советника президента по культуре и спорту.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кандидат на пост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прошёл парламентские слушания, но не получил одобрения депутатов от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Он является 18-м членом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 Сок Ёля, назначенным без согласия парламента. 5 октября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провело слушания по кандидатуре Ю Ин Чхона, придя к выводу, что он «не полностью» подходит на должность ми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В РК обостряется проблема утечки технологий

Более 65%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ромышл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утекших за рубеж, были незаконно переданы Китаю.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Чо Ын Хи, входящая в состав парламент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у управлению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сылаясь на данные полиции, она сообщила, что в период с 2018 года по июнь этого года были зафиксированы 78 случаев утечки промышл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Задержаны 225 причастных к данному преступлению. 51 случай утечек или 65,4%, связан с передачей технологий Китаю. Далее следуют США – 8 случаев, Тайвань и Япония – по 5 случаев. Помимо этого, выявлены факты утечек технологий в Узбекистан, Малайзию, Францию, Саудовскую Аравию, Вьетнам, Индию, Венгрию, Ирак и Австралию. В основном утечки технологий касаются отраслей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электротехники, электроники, транспорта, судостроения и робототехники.

В РК продолжает сокращаться рождаемость

В сентябре в РК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17.926 новорождённых. Это на 9% мен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вгустом, и на 20% меньше, чем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Такие данные представлены 9 октябр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июне показатель впервые опустился ниже 20 тысяч новорождённых, а в сентябре – ниже 18 тысяч. Наибольший показатель рождаемости был зафиксирован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 5.412, а наименьший в городе Сэчжоне – 176. Нынешний спад объясняется резким сокращением количества браков. В конце сентября население РК составило 51 млн 371 тыс. человек. Это на 7.212 человек мен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месяце.

Спортсмены РК заняли третье место на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в Ханчжоу

На XIX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боевой дух и волю к победе.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Спортивного совета РК Ли Ги Хын, выступая 8 октября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Ханчжоу. Он обещал сформировать экспертную группу, которая проведёт тщательный анализ завершившихся Игр, чтобы учесть допущенные ошибки при подготовке к Олимпийским играм 2024 года в Париже.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манда в составе 1.140 спортсменов, которы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39 видам спорта, завоевали 42 золотые, 59 серебряных и 89 бронзовых медалей, заняв третье место в общем зачёте. У команды Китая, занявшей первое место, 200 золотых, 111 серебряных и 71 бронзовая медаль. У японской команды, которая заняла второе место, 51 золотая, 66 серебряных и 69 бронзовых медалей. Руководитель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анды Чхве Юн отметил, что результаты Азиатских игр оказались хуже, чем планировалось. Он обещал приложить усилия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командой лучших результатов на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в Париже,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менее чем через год. Между тем, пловец Ким У Мин и лучница Им Си Хён, завоевавшие по три золотые медали, были признаны «самыми ценными игрокам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анды на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22-летний Ким У Мин показал лучшие результаты на дистанциях 400 и 800 метров вольным стилем и в эстафете 4x200 метров вольным стилем среди мужчин. Он стал вторы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пловцом, выигравшим три золотые медали на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после Пак Тхэ Хвана, трёхкратного золотого медалиста Игр 2006 и 2010 годов. 20-летняя Им Си Хён завоевала золото в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и коман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среди женщин, а также в смешанных коман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стрельбе из олимпийского лука. Она – первая за 37 лет южнокорейская лучница, завоевавшая три золотые медали на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Завершившиеся Игры собрали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из 45 стран Азии – 12,5 тысяч человек. Они разыграли 481 комплект медалей в 61 дисциплине по 40 видам спорта. (RKi)

В Сахалинск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прошла лекция о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хангыль, который празднуется в Корее 9 октября, – особый праздник для все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Именно к созданию собственн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относят формирование независимого от Кита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 этом году, согласно официальной версии, созданию хангыля исполняется 577 лет.

Юлия Дин рассказала об истории происх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от самого ее зарождения д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Прибыв на Южный Сахалин и попав под юрисдикцию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1945 году, они не знал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пользовались своим традиционным письмом. Совет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ощряло данную часть культурной традиции, учреждая школы, газету, театр, радио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здавая школьные учебники и книги.

Один из интересных документов, которые лектор представила на лекции, – заяв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янки в 1949 г. с просьбой оставить ее на Сахалине. Документ написан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но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ью хангылем. Также интересные иллюстрации показала Юлия Дин из советских учебников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в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ских школах.



Фрагмент из советского учебник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 повестью И. Тургенева «Муму»

Данные учебники стали библиографической редкостью и сейчас хранятся 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апомним,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ий ЭтноЛекторий» – это популярная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ая площадка Российского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го музея в партнерстве с региона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и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на базе которой ученые читают лекции, посвященные этнографии, архе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фольклористике.

Наш корр.
Фото: А. Криулькин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разведка показательно взломала систему электрон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страны

Национальная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ая служб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РС РК) провела тестирование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страны. Сумев взломать ее, она доказала уязвимость перед возможными атаками извне,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овлиять на итоги выборов.

Как было заявлено, в период с 17 июля по 22 сентября специальная комиссия, составленная из специалистов НРС РК, Центризбиркома и агентства содействия развитию интернета, проводила комплексн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широко используемой на выборах в стране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на предмет выявления возможных уязвимостей. Результаты оказались обескураживающими.

По слова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РС РК, хотя их специалисты применяли "стандартный" набор приемо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хакеров, не прибегая к каким-либо особо оригинальным ухищрениям, они смогли взломать и проникнуть в электронную систему. В качестве "пробы" были произведены манипуляции, когда менялся выбранный кандидат, проголосовавшие граждане отмечались как неголосовавшие и наоборот, когда в неограниченном порядке распечатывались бюллетени и прочее.

Было также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к системе можно подключить стороннее программ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через внешние носители, что позволит полностью перехватить контроль над системой. В итоге был сделан вывод, что применяемая сейчас в стране система электрон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на выборах крайне уязвима, ее могут взломать хакеры даже со средним уровнем квалификации, повлияв на итоги голосования.

Данное заявление НРС произвело большой скандал. В Южной Корее зачастую результаты важнейших выборов – от выборов в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до всеобщих и президентских – сложно предсказать, а разли-

ца между победителем и проигравшим бывает очень небольшая.

Для примера можно привести ситуацию с последними президентскими выборами в марте 2022 года, когда Юн Сок Ёль опередил своего главного оппонента с разрывом всего лишь в 0,73 процента. При этом широко использовалась практика как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так и электронного подсчета голосов.

На этом фоне любые, даже незначительные вмешательства в систему могут изменить итоговый результат, не говоря уже о перехвате контроля, когда, по сути, можно вообще манипулировать итоговыми результатами по желанию хакеров.

Все это привело к панике в Центризбиркоме, который сейчас проводи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в одном из округов Сеула, а в апрел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 выборы в парламент. Опросы показывают, что две основные конкурирующие партии имеют сейчас очень похожий уровень поддержки с разрывом лишь в 1-2 процента. В этой связи можно ожидать, что если не будут сделаны выводы и внесены изменения, то неизбежно последуют обвинения во взломе и подтасовке результатов.

В этой связи в Центризбиркоме РК заявили, что намерены в сжатые сроки самым тщательным образом изучить сделанные проверяющей комиссией выводы, учесть рекомендации и существенно изменить систему электрон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чтобы устранить все выявленные бреши.

Такж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установки на всех участках для голосования камер наблюдения, изображение с которых в день выборов будет транслироваться в прямом эфире и будет доступно всем желающи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Более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наблюдали за крупнейшим фестивалем фейерверков в Сеуле

В субботу 7 октября вечером у парка на берегу реки Ханган, что в Сеуле, проше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фейерверков 2023". Как обычно бывает,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рало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зрителей, но на этот раз были побиты все рекорды.

По слова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лично наблюдать за полетом фантазии мастеров фейерверков в парке в районе Ёйдо Сеула собрались более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Само же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корейским концерном Hanwha Group, стало крупнейшим в мире по своим масштабам. Оно прошло под лозунгом, который по-английски звучит достаточно просто – "Огни завтра", но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более витиевато: "Светлое будущее, ярко подсвечивающее красочными огнями мир завтра".

В этот раз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команды

из Южной Кореи и Китая, которые в течение 70 минут радовали зрителей бурей огня и красок в вечернем неб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ы.

С учетом масштаба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были приняты особые меры: задействованы 6800 сотрудников,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был перенаправлен по другим маршрутам, а поезда метрополитена следовали мимо ближайшей к парку станции без остановок, чтобы не провоцировать скопление народа. Те же, кто хотел занять более-менее удобные для наблюдения за фейерверком места, прибывали в парк за четыре-пять часов до начала фестиваля. Впрочем,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в прямом эфире по телевидению и YouTube-каналам велась прямая трансляци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Поезда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будут ходить чащ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ригородные поезда до станций Христофоровка и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ка, а также 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Корсакова будут ходить чаще. При этом интервалы между рейсами до Христофоровки и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ки сократятся с полутора часов до 30-40 минут. Такие изменения станут возможны благодаря строительству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араллельных путей – двухпутных вставок.

Работы выполнят в рамках развития «Городского экспресса», с запуском которого пассажиры поездов и автобусов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добираться с окраины в центр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всего за 20 минут, с комфортом ездить в Корсаков.

– Это значимый шаг в развитии нашей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У людей, проживающих в границ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осуществлять поездки н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м транспорте с наименьшим временем в пути, минуя автомобильные пробки на дорогах. Мероприятия транспортной реформы инициированы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они включают в себя не только запуск «Городского экспресса», но и развитие систем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целом и его синхронизацию между собой,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Спиченко,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вухпутных вставок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пропускную способность перегонов от Христофоровки до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ки, сократить интервалы движения пассажирских поездов.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й транспорт станет более доступным для жителей,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Андрей Золотых,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начальник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Городской экспресс» призван по примеру лучших мировых практик интегрировать железную дорогу в систему город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а также связать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расположенные рядом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в единую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ую систему.

Благодаря проекту жители и гост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уже сейчас могут с комфортом добираться на рельсовых автобусах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 и Христофоровку, а также в обрат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Все остановки, находящиеся на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маршрутах, были сопряжены с автобусным сообщением.

Первые два транспортно-пересадочных узла – на вокзал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в Дальнем – были открыты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транспортно-пересадочных узлах (ТПУ) «Привокзальный» и «Алые розы»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ерроны, посадочные посты для автобусов, крытые велопарковки и зеленые зоны. На объекте в Дальнем обустроили теплый павильон ожидания, в котором пассажиры 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напитки 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маршрутам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а сенсорном табло.

1 октября этого года завершены рабо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бесплатной парковки и обустройству остановки и места заезда город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а транспортно-пересадочном узле (ТПУ) «Горизонт». Запуск подвижных автобусных маршрутов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ен с вводом одноименного жилого комплекса. Также в активной стадии реализации находятся работы по созданию транспортно-пересадочного узла Нова. Работы завершат в этом году.

Первы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орум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собрал на Сахалине более 200 добровольцев

Первы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орум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собрал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сотни добровольцев – людей, которые помогают своим землякам решать вопросы медицины и ЖКХ, приобщают их к спорту и культуре, оказывают психологическую поддержку. К мероприятию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активисты из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Хабаровского и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ев, Нижнего Новгорода, Магадана, Екатеринбурга и Приморья. Во время слета они познакомятся с островными социальными проектами, обменяются опытом, посетят тематические лекц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круглых столах и мастер-классах.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Богатый жизненный опыт и открытое сердце позволяют вам бескорыстно помогать тем, кто нуждается в заботе и внимании. Эту активную гражданскую позицию не раз отмечал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участвуют буквально во всех сферах жизни. И мы уже не представляем деятельность многих ведомств без вас. Это и социальная сфе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спорт, культура, ЖКХ, экология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Сегодня здесь собрались 2 сотни таких добрых сердец. Знаю, что у регионов накоплен значительный опыт поддержки «серебряного»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И я рассчитываю, что вы поделитесь им на этой площадке. А м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и, создадим условия, чтобы это движение продолжало развиваться. Желаю вам продуктивной работы на форуме и успеха в вашей благород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орум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продлился до 12 октября. 10 октября добровольцы неформально пообщались с главой региона. Кроме того, активисты сплели маскировочную сеть с пожеланиям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и курильских бойцов – её отправят в зону проведения СВО.

– Я приехала из Комсомольска-на-Амуре. Считаю, се-

годня добровольче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а. Наши ребята защищают Родину, и мы должны им в этом помогать. Я, например, плету маскировочные сети. В ответ нам бойцы присылают видео со словам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Говорят, сетки наши прочные. Даже лучше, чем у нанайцев, – рассказала волонтер Людмила Маркова.

Добровольцы уже успел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главными социальными проект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их числе – партийный проект «Единой России» «Сопричастность», региональные инициативы «Центральная поликлиника», «Персональ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администратор»,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Управдом», «Углублен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осмотр» и «Путевка выходного дня».

– Ваши проекты нас приятно удивили. Какие у вас гарантии,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У нас такого нет. У вас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сто замечательно, дышится легко, воздух хороший. Очень понравились ваши красивые дороги, газоны. Знаю, был шторм у вас, но уже все чисто,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волонтер Галия Пиунова.

Активистов ждали лекция «Как стать успешным волонтером», панельная дискуссия, круглые столы по различ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и проекту «Сопричастность». Также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посетили концерт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галерею и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 Я работаю в библиотеке уже 43 года. Привыкла к общению с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людей – тружусь для них. Когда у нас появилось движение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сердце позвало меня туда. Я работаю по медицинск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 раздаем листовки, приглашаем на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информируем людей, собираем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помогаем людям с сахарным диабетом. Ситуации бывают разные. Даже иногда помогаем обустроить жилье пациентам, прибывшим из больницы – помочь, навести порядок, – отметила волонтер Людмила Муравьева из Смирных.

По итогам форума участники составят план развития волонтерства среди пожилых людей. В него войдут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расширению института наставничества, привлечению опытных волонтеров к работе дет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 школ.

Отметим, всег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к волонтерскому движению присоединилось около 3 тысяч ж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Он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о всех значим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 социальная сфе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спорт, культура, ЖКХ, экология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Огромное внимание активисты уделяют вопросам помощи участникам СВО. Женщины регулярно собирают посылки для бойцов, плетут маскировочные сети, готовят сублимированные борщи и супы, изготавливают окопные свечи.

Еще в 3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лагоустроили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Работы завершились в Ногликском, Холмском и Невельском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ъекты, которые были благоустроены, поддержало большинство жителей в ход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Так, в Ногликском районе завершилось об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и «Перекоп».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по созданию зоны отдыха были выполнены устройство дорожек из тротуарной плитки, установка качелей, беседок, лежачих, скамеек и урн, устройство площадки ТБО и парковочной зон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установили детский игровой комплекс, оборудовали площадку для волейбола и мангальную зону.

Жителей Невельска теперь радует обновленная набережная по улице 70 лет Октября. На пешеходных дорожках уложили новую плитку, сформирова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тротуары, установили детское и спортив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скульптуры и другие мал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формы. Кроме того, был проведен ремонт уличного освещения набережной.

– Старая набережная давно потеряла свой вид. Одно из любимых мест отдыха горожан требовало замены покрытий и тротуара. Хотелось видеть новые детские площадки, так как многие невольчане приходят сюда с детьми, и пускать их на прежние аттракционы было просто небезопасно. Когда мы узнали, что набережная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голосовании за объ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голосовали, пожалуй, всем районом. И уже сегодня видим результат – здесь стало уютнее, интереснее и, главное, безопаснее,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Невельска Анастасия Калинкина.

В Холмске завершены работы по обновлению площади Мира. Здесь заменили десятки метров коммуникаций, провели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фонтана, смонтировали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его работы оборудование, в том числе светодиодное освещение, а также установили современную туалетную комнату на две кабинки. Чаша фонтана выполнена из современных и долговечных материалов.

– Благодаря нацпроекту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создаются уютные, комфортные и красивые скверы, парки и набережные. Не так давно в Макарове завершилось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сразу 4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сквера «Без пяти семь», пешеходной улицы 50 лет Октября, Аллеи первых свиданий

и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сквера. В Аниве обновили сквер Дружбы,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я Куприна.

Близятся к завершению работы на объектах в Курильске, Южно-Курильске 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Охе, Долинске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Так, в Долинск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в границах улиц Пионерской и Октябрьской осталось установить мал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формы.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в рамках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обществ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вблизи здания бани также завершают установку малых архитектурных форм и озеленение.

Начиная с 2019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новый облик получили около 130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В этом году будут сданы не менее 20 объектов, победивших на голосовани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проекта – преобразить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сделать их комфортнее для людей, дать новый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ю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15 новых газовых котельных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запустят на Сахалине

На Сахалине в следующем отопительном сезоне запустят 15 современных котельных.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ерии коммун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 результат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омпании Газпром. Котельные появятся в Поронайском, Макаровском, Тымов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Детали реализации крупных проектов из сфер ЖКХ,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образовани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бсуди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О «Газпромбанк», Группы К1, ООО «Инвестстрой», ООО «ФДС» и ООО «СКФ «Сфера». Совещание состоялось в стенах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Газпромом запущен ряд значимых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оектов. Они направлены на то, чтобы улучшать эколог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делать более доступным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и образование. Речь идет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десятков современных газовых котельных, нескольких поликлиник, кампуса СахГУ. Мы хотим, чтобы наши жители чувствовали себя комфортно на островах, получали здесь образование, раскрывали св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потенциал и создавали семьи. Для этого многое делается, а механиз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позволяет значительно ускорить эту работу,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разу пять газовых котельных появятся в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е, по четыре – в Макаровском и Тымовском. Еще по одному современному объекту ЖКХ возведут и запустят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Котельные запустят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отопительном сезоне.

Сегодн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 голубом топливе работают более 40 объектов ЖКХ. При этом в ближайшие два года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планируется начать возводить еще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котельных.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остается вопрос создания на острове соврем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условий для оказания качественной первичной медико-с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Совместно с Газпромбанком в регионе будут построены 5 современных поликлиник. Объект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озведение которых уже началось, появя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Холмске и Углегорске.

– Лечебные учреждения планируется сдать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снащенные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поликлиники будут обслуживать десятки тысяч людей по полисам обяза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аких объектов имеет для нас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поскольку мы взяли курс на повышение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 подчеркнул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Один из самых крупных и значимых концессионных объектов – это передовый кампус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ахалинТех. В ходе совещания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ход выполнения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при выполнении текущих задач и дальнейшие шаги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Активная фаза работ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на месте бывшего Дома офицеров уже началась. Там предусмотрят учебные аудитории,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лаборатории, R&D центры, технопарк, библиотеку, спортивные залы,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музей. Такж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ампуса появятся помещения для пуб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ыставочные площадки, кафе и оранжерея, которая одновременно будет и открытым общественным пространством. Общая площадь объекта – более 88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Также идут рабо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студенческого городка, в котором смогут разместиться 1500 человек. Это новое, современное место для проживания учащихся и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ого состава. Для досуга студентов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удгородка появятся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Так, будет оборудована спортивная зона, включающая фитнес-центр с раздевалками и душевыми, комплекс тренажерных залов. Также в студгородке обустроят столовую, кафе, медицинский пункт.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будут открыты общественные места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정부와의 대화' 진행

재외동포청,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담당자 발표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서울에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열렸다. 3일에는 ▲운영위원회 ▲2023 통일대북정책 분야 사회적 대화 ▲지역별 만찬이 진행됐다. 4일에는 ▲산업시찰 ▲지역별 현안 토론 ▲기조강연 ▲개회식 및 재외동포청장 주최 환영 만찬이, 5일에는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국회부의장 주최 오찬 ▲한인회 운영사례 발표 ▲정부와의 대화 ▲한인회장의 밤이 이어지며, 6일에는 ▲전체 회의 ▲폐회식 및 환송 오찬으로 마무리되었다.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전 세계 한인회장들을 초청해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한인회장 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거주국에서 한인동포들의 지위 향상 및 권익신장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2000년부터 재외동포재단이 매년 개최해오다 올해부터는 새로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주최했다.

'자랑스런 재외동포, 든든한 대한민국'이란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올해 대회에는 해외 60여개국 한인회장 및 대륙별한인회총연합회 임원 350여명이, 국내에서는 유관기관 및 동포단체 관계자들 5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오프닝 공연(천고무) ▲국민의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대회 공동의장인 여건이 재일본대한국민단 중앙단장의 개회선언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의 환영사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세계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유정복 인천시장의 축사 ▲만찬 순서로 진행됐다.

10월 5일 오후 2시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는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셋째 날 오후 프로그램으로 재외동포 관계 정부 부처와 한인회장들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이날 함께 한 정부부처는 재외동포청,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무청, 국민연금공단이었으며 재외동포청의 경우 재외동포정책국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담당자가 각각의 역할을 설명했다.

재외동포청 전반적 정책과 민원 서비스

김민철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은 재외동포청의 전반적인 정책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먼저 재외동포사회의 성장에 대해 설명하고 재외동포청의 신설 의의에 대해서도 짚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 정책과 사업에 대해 설명했으며, 재외동포 현안과 최근 동향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김 국장은 재외동포청 업무 주요안점으로 지역/분야별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 강화와 24시간 원스톱 서비스를 꼽았다.

분야별 재외동포 관련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재외동포 교육사업(한글학교 운영지원 및 교사 역량 강화, 중국 및 CIS 지역 민족 교육 지원) ▲재외동포 교류지원 사업(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동포사회 숙원 사업 지원)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사업(세계한인의날,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재외동포 차세대사업(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육성사업, 재외동포 장학사업,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경제인 네트워크 사업(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재외동포 경제인포럼, 한상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다.

이어 김연식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장은 재외동포 통합민원서비스 플랫폼 구축, 재외동포 통합민원실과 24시 콜센터 운영 등 재외동포청에서 진행하는 민원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부,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 설명

장희정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장은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이란 제목으로 국적법의 기본원칙과 ▲국적회복 ▲국적선택 ▲국적 이탈 ▲국적상실 등의 주제에 대해 안내했다.

장 과장은 국적관련제도 중 '국적회복'과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에 대해 특히 자세히 설명했다. 장 과장은 "국적회복이란 과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사람이 다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과장은 "국적회복을 원하는 재외동포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나 재외공관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셋째 날 오후 프로그램으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단,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 신청자로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후 복수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없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제도 평가 및 과제'

김동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과장은 '재외선거 제도 평가 및 과제'라는 제목으로 지난 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중심으로 재외선거제도를 평가하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반년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도 안내했다.

재외선거 대상이 되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의원 선거이며 선거권자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재외국민 중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다.

재외선거인의 경우, 선거 참여 신청 기간은 선거일 전 60일까지이며, 국외부재자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다.

김 과장은 "2020년 12월 기준 추정 재외선거권자 수는 약 201만명이었다"면서 지난 대통령 재외선거 관리에서는 ▲주권 제약에 따른 선거준비 및 관리상 어려움 ▲전 세계에서 실시되는 재외선거관리의 시·공간적 한계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등으로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인지 71.6%를 기록해 19대보다는 떨어졌다. 김 과장은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재외선거 상황실을 24시간 대응하면서 219개 투표소를 배치해 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만 재외선거 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큰 무리 없이 선거가 치러졌다.

재외선거제도 개선 내역으로는 ▲재외선거인 등 신고 및 신청 방법 확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도입, 귀국투표제도 도입, 공관 외 추가 투표소 설치 등을 소개했고, 재외선거 제도개선 향후 과제로는 ▲귀국투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마련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대비 제도개선 방안 모색 ▲우편 온라인투표 등 비대면 투표방식 도입 등을 꼽았다.

재외선거 제도개선의 향후 과제로는 우편·온라인투표 등 비대면 투표 방식 도입을 거론했다. 김 과장은 재외선거 우편투표는 투표편의를 제고하는 반면 허위신고, 대리투표 발생 가능성 그리고 국가별 우편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분실이나 배달 지연 등 편의성과 공정성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외선거 온라인 투표 역시 비밀 투표 훼손, 대리투표 발생 가능성 등 공정성 문제, 국가별 통신망 환경 등에 따른 안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김 과장은 전했다.

내년 봄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일정에 관해서도 안내했다. 먼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5월 10일까지 설치되며,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내년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이틀 간이며 재외투표소 투표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치러진다.

병무청, '재외동포와 병역제도'는?

송민선 병무청 자원관리과장은 재외동포와 병역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송 과장은 ▲병역제도 개관 ▲국외여행허가 제도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국적과 병역의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 ▲협조사항 등 순서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송 과장은 국외여행허가 제도,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 발급, 국적과 병역의무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 특히 복수국적자와 국적변경자의 병역의무, 대한민국 국적 이탈에 대한 특례 등을 자세히 전했다. 다음으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에 대해서도 송 과장은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국민연금공단,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사회보장협정'

강수영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협정사업부장은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사회보장협정'이란 주제로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한 뒤 사회보장협정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재외동포 관련 주요 업무는 국민연금 재외국민 자격업무와 국민연금 급여 지급 업무다.

사회보장협정이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각국 연금제도 등에서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고 있으며, 협정 발효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사회보장협정이 필요한 사례로는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국외이주 또는 국적이 상실되는 경우 ▲외국에서 연금을 받다가 한국에 영국 귀국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들어 설명했다.

강 부장은 사회보장협정의 혜택은 이중 납부 해소와 가입 기간 합산이다. 협정에 따라 재외국민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고려해, 본국에 거주하는 국민과 동일한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 합산 협정국에 거주하면서 양국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 연금 혜택을 나눌 수 있다.

(재외동포신문 자료들에서)

'세계 제주인이 한자리에' 세계제주인대회 8일 폐회

세계 곳곳서 620여 명 제주인 참여

세계 곳곳의 제주인이 함께 한 제2회 세계제주인대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8일 폐회했다.

'흥·니도모영 지꺼지게 놀게마씀'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문화공연과 차세대 제주인포럼, 친선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이날 낮 12시 메종클래드 제주에서 진행된 폐회식과 환송오찬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세계제주인대회에는 세계 곳곳에서 620여 명의 제주인이 참석해 탐라인

의 끈끈한 유대를 확인했다. 서울과 서부경남, 경기 안산, 부산 등 국내 16개 도민회 375명, 일본의 관동과 관서지역 2개 도민회 105명, 미국의 시카고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6개 도민회 61명이 제주를 찾았고, 호주와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사할린) 등지의 제주인들도 고향을 방문했다.

특히 처음으로 싱가포르, 태국, 대만,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에서도 재외제주인들이 참가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폐회식 환송사를 통해 세계를 향한 재외제주인들의 불굴의 도전정신은 70만 제주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며 도전의 길과 개혁의 정신을 탐라 DNA라고 정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 제2회 세계제주인대회가 8일 폐회식을 끝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주도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에두아르드 무하메드신의 제자인 글렘 솔로비요브는 경기를 치르며 사할린뿐만 아니라 전 러시아의 명예를 지켜냈다.

13세의 글렘 솔로비요브는 체급별 '71kg 이상' 종목에 출전하여 첫 예선전에서 몬테네그로의 드미트리 토스코비츠와 대결하여 승리했다.

결승전에 오른 사할린의 어린 선수의 상대는 튀르키예의 아이테킨 구쉬였다.

마침내 이 결전에서도 사할린의 선수는 탁월한 기량을 펼쳐 체급별 종목에서 최강자로 떠올랐다. 이렇게 사할린의 어린 선수는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Юный житель Сахалина победил на первенстве мира по муай-тай в Турции

Сахалинский спортсмен Глеб Соловьев принес области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по итогам мирового первенства по тайскому боксу (муай-тай). Юный островитянин блестяще выступил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 Турции. Турнир состоялся в городе Кемер.

Конкуренция на состязаниях по тайскому боксу зашкаливала: за титулы и медали сражались более 1 тысячи спортсменов,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77 стран. Воспитанник Эдуарда Мухамедшина отстаивал честь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а, но и всей России. 13-летний Глеб Соловьев выступал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более 71 кг».

В первом поединке сахалинец противостоял представителю Черногории Димитрию Тосковичу и одержал верх. В финале соперником нашего юного боксера стал турок Айтекин Гюш, и этот поединок также показал превосходство островитянина.

По итогам выступлений Глеба Соловьева признали сильнейшим в своей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Житель Сахалина завоевал золото первенства мира.

사할린 동물원, 월동 준비체제로 전환

10월 9일부터 사할린 동물원이 월동 일정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동물원은 매일 10:00부터 18:00까지 운영된다고 동물원 측에서 전했다.

"대표소 운영은 평일 마감시간보다 1시간 일찍(17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마감시간보다 30분 일찍(17시 30분) 문을 닫는다. 기념품 가게는 16:30까지(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 운영된다"고 전했다.

'영장류', '수족관' 및 '엑조타리움' 전시관은 오전 11시부터 개장된다. 매주 월요일은 영장류 전시관 위생관리의 날이다. '수족관'은 매주 수요일에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는다. '제레벤스코예 포드위리에(시골 뒷마당)'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Сахалинский зоопарк перешел на зимний режим работы

С 9 октября Сахалинский зооботанический парк переходит на зимний график. Учреждение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ежедневно с 10:00 до 18:00,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зоопарка.

«Касса закрывается на час раньше по будням (в 17:00) и на полчаса раньше в выходные и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в 17:30). Сувенирная лавка работает до 16:30 (все дни недели, кроме понедельника и вторника)», — рассказали в учреждении.

Экспозиции «Приматы», «Аквариумы» и «Экзотариум» открыты с 11:00. По понедельникам у «Приматов» санитарный день. «Аквариумы» закрыты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по средам. «Деревенское подворье» работает по вторника по воскресенье с 11:00 до 16:00.

10월, 사할린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직 발표

헤헤루(Hh.ru) 채용포털 사이트의 연구 서비스가 사할린 주의 채용시장을 분석한 가운데 2023년 10월 초를 기준 가장 요구되는 전문직 상위권을 밝혔다. 이 목록에 20개의 다양한 직업들이 포함돼 있다.

헤헤루(Hh.ru) 정보에 따르면 사할린주 고용주 입장에서 더욱 큰 관심을 끈 직종은 2023년 10월 1일 기준 전체 채용공

고 중 8%를 차지하는 판매 및 상담, 판매 계산직이었다.

2위로는 판매 경영과 고객 서비스 전문가가 7%를 차지했고, 3위는 5%의 채용공고가 나온 운전직이다. 사할린 지역에서 3%의 채용공고가 지속적으로 나온 기계공과 잡일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은 특이하다. 많아 요구되는 전문 직종 20개 목록에는 다양한 직종의 대표자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설비공, 배관공, 회계원, 점원, 요리사, 제빵사, 제과사, 영업 사원, 고객센터센터 운영자, 관리자, 전기기사, 보안장비 기술자, 청소원, 운송업자, 요식업 직원, 바텐더, 바리스타, 용접 공, 제품 포장사, 창고 직원, 의사직 등이다.

Опубликован топ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октя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лужба исследований Hh.ru провела анализ рынка тру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определила топ самых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 начало октября 2023 года. В список вошло 20 различных профессий.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от Hh.ru,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ибольшее внимание со стороны работодателей привлекают продавцы-консультанты и продавцы-кассиры, которые составляют 8%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активных вакансий на 1 октября 2023 года.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с долей в 7% расположились менеджеры по продажам и специалисты по работе с клиентами, а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оказались водители, собравшие 5% предложений о работе.

Также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высокий спрос в регионе сохраняется на машинистов и разнорабочих, для которых предоставлено по 3% вакансий. В список 20 наи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также во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личны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фер, такие как слесари, сантехники, бухгалтеры, кладовщики, повара, пекари, кондитеры, торгов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ператоры контактных центров, администраторы, электромонтажники, инженеры по технике безопасности, уборщики, грузчики, официанты, бармены, баристы, сварщики, упаковщики, комплектовщики и врач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 | | | | | |
|------------------------------------------------------------------------------------------------------------------------------------------|-------------------------------------------------------------------------------------------------------------------------------------------------|------------------------------------------------------------------------------------------------------------------------------------------------------------------------------------------------------|----------------------------------------------------------------------------------------------------------------------------------------------------------------------|--------------------------------------------------------------------------------------------------------------------|--------------------------------------------------------------------------------------------------------------------------------------------------------------------------------------------------------------------------------------------|
|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p> |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